



안인모
클래식 연구가



손지수
소프라노



문계원
피아니스트



정계원
베이스

한낮 문화향유 마티네로 '감성 충전' 해볼까

광주에당·시립합창단 나란히 '11시 화음'
'11시음악산책' 28일... '어울림 IV' 29일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는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이 문화로 채워진다. 예술의전당 기획공연과 시립합창단의 마티네 콘서트로 낮 시간대 시민들의 감성을 깨우며 일상 속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힌다.

먼저 광주예술의전당이 GSC 기획공연 11시음악산책 단편선 시리즈Ⅱ '목걸이'를 오는 28일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열린다.

GSC 기획공연은 화요일 오전 소극장에서 선보이는 인문학 콘서트다. 이번 무대는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를 중심으로 '두 개의 거울'이라는 주제 아래 프랑스 사실주의 문화와 인상주의 미술 그리고 오페라 음악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그 이면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상류사회를 동경하던 마틸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허영과 욕망, 체면과 현실이라는 인간의 두 얼굴을 비춘다. 문학 작품과 함께 소개되는 작품은 메리 카사트의 '진주 목걸이'를 한 관람객의 여인이다. 오페라 관람객의 여인을 담은 이 작품은 화려한 사교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콘서트 가이드는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맡고, 소프라노 손지수, 피아니스트 문계원, 첼리스트 정광준이 무대를 함께한다.

무대는 '꿈틀거리는 욕망의 거울', '무도회', '현실의 거울'로 구성돼 화려한 순간 뒤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과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에리크 사티의 '짐노페디 1번'으로 시작해 '그노시엔느 1번',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언제나 자유롭게', 클로드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로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가브리엘 포레의 '꿈꾸고 난 후에'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안녕, 지난날 이어'가 울려 퍼진다.

아울러 광주시립합창단은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 IV'를 오는 29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는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이 문화로 채워진다. 사진은 광주시립합창단의 마티네 콘서트 '어울림' 모습. 사진제공=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해 합창의 매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정형화된 무대에서 벗어나 관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며, 단원들의 숨결과 합창의 미세한 떨림까지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합창단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어울림' 시리즈는 올해 '합창음악의 역사'라는 대주제를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첫 무대인 이번 공연에서는 서양 음악의 근간이 되는 중세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이

르는 초기 합창 음악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은 시대별 합창 음악의 변천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그레고리오 성가'로 문을 열고,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중심 미학이 담긴 마드리갈과 프랑스 샹송을 들려준다. 화려함의 극치인 바로크 시대 헨델과 비발디의 작품을 거쳐, 동물 소리를 익살스럽게 묘사한 '동물들의 합창'까지 엄숙함과 유쾌함을 넘나드는 레퍼토리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공연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본 공연 시작 20분 전에는 지휘자와 관객이 답소를 나누는 '마티네 특

목'이 진행된다. 아울러 합창단의 정교한 하모니 위에 더해지는 친근한 해설은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관객들에게 인문학적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은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올해는 합창의 역사를 돌아보는 깊이 있는 구성과 함께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소통형 무대를 준비했다"며 "공연장 로비에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가 시민들에게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휴식이자, 클래식 음악의 깊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주버스킹월드 참가자 모집 동구문화관광재단, 내달 31일까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은 오는 10월 개최를 앞둔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산 문제로 격년제 개최가 검토됐던 광주버스킹월드컵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장축제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기존 32강 체제에서 8강 규모로 본선 진출팀을 축소 운영하되, 국제적 행사의 위상에 걸맞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단순 경연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거리공연'을 대폭 확대한다.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 8팀과 별도로 선정된 '버스킹프린지' 15개 팀을 포함, 총 23개 팀이 광주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펼치며 낭만적인 도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

최종 본선에 참여하게 될 팀에게는 총 상금 2000만원(4개 팀 시상)을 비롯해 본선 진출팀 대상 항공료 및 숙박 지원, 축제 기간 내 거리공연 기회 제공, 글로벌 음원 발매 및 유통 등을 지원한다.

올해도 해외 유수의 음악 페스티벌 프로그램과 공연 디렉터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 뮤지션으로 국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단, 가창과 악기 연주 등 라이브 퍼포먼스가 가능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뮤지션은 5분 이내의 라이브 공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해당 링크를 광주버스킹월드컵 공식 누리집(www.buskingworldcup.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매화·목련·소나무·들풀... 봄꽃들 화폭 '가득'

국윤미술관 기획전 작가 최재봉展
내달 15일까지 대작 20여점 선보여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광주시 주관으로 지난 10월 개막, 오는 5월 15일까지 최재봉 작가를 초청한 기획전을 '봄 결'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200호, 300호에 달하는 대작 20여점.

이번 기획전은 따뜻한 봄날의 풍경과 그 자리를 수놓는 봄꽃을 예술로 담아낸 일상의 미학을 재발견하고, 작가의 가치관과 작품관을 이해하는 지역민의 예술 향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전에 선정된 최재봉 작가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자연 풍경을 현장 사색을 통해 깊이 탐구해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온 가운데 일상의 익숙한 풍경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을 넘어 작가의 가치관을 담아낸 예술적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화면에는 봄의 시작과 선비의 기운을 상징하는 매화와 목련, 소나무 그리고 우리 민중의 생명력을 담은 들풀 등 다양한 봄꽃들이 담겨 있다. 작가는 단순히 봄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삶의 고민을 녹여냈다는 설명이다.

현장 사색으로 사실 풍경을 표현하면서 꽃의 피상적 아름다움이 아닌 이면에 의미를 부여해 작업하고 있는 작가는 순수한 들풀, 선비정신의 기개를 담은 매화꽃, 소나무 등에 민중의 모습을 이입하며, 작가만의 감성과 독자적 화풍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은 '매화'는 사생으로 대상에 취한 작가의 눈과 손에 이끌린 교감을 감상자가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울동적인 고목의 생동감과 가지 위에 핀 꽃, 호수에 떨어진 꽃잎이 잔잔히 물결을 따라 흐르는 그 철나의 존재에 시선이 머물게 한다.

최 작가는 "봄 풍경을 그리는 감성적 정서 향유 기회와 피상적 아름다움의 이면에 의미를 두게 됐다. 꽃을 통해 민중의 모습, 민초들이 공감한 대동 세상이 함께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면서 "현장 사색을 하며 순수한 들풀과 더불어 매화, 목련 등 봄꽃을 배경으로 그렸으며 때로는 주제로 삼기도 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봄 결'인 꽃을 주제로 삼기로 했지만, 상통한 선비정신의 기개를 담고자 했던 성품과 피상적인 꽃의 아름다움을 넘어 이면에 민중의 정서를 내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표상에 대한 고뇌가 담긴 가치관과 작품 세계를 연결해 봤다"고 밝혔다.

이어 김은희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에 대해 "색채가 자연스러울 때 감정이 더해지며 극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결은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또는 무늬의 상태를 말한다. 사람마다 각각의 결이 있다. 그 사람이 삶을 대하고, 관계를 대하며 지나는 시간과 흔적이 만들어낸 고유한 무늬다. 매화꽃을 표현하면서 선비정신의 기개를 담고자 하는 그의 성품과 피상적 아름다움을 넘어 민중의 정서를 내포해 들풀을 표현하는 작가가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공감하며, 우리네 삶의 결을 다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봄의 연락'

마이스키 트리오·호주 서커스 등 'ACC 초이스' 공연 목록 공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국내외 우수 공연을 엄선해 소개하는 'ACC 초이스' 2026년 공연 목록을 공개했다.

'ACC 초이스'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의 우수 공연을 초청해 관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세계적 클래식 연주자의 내한 공연부터 판소리, 호주 서커스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6편을 선보인다.

먼저 오는 6월 5일에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사 마이스키와 그의 두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트리오 공연 '마이스키 트리오'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7월 11~12일에는 '2025 서울연극제' 우수 수상작인 연극 '돌아온다'가 관객들을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8월 14~16일에는 한글을 통해 삶의 새로운 설렘을 만나는 할머니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오지개 재밌는 가시나무'이 무대에 오른다. 해당 작품은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선정작으로 이미 작품성을 검증받았다.

9월에는 클래식과 전통 예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9월 12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벨리히'의 연주회가, 18~19일에는 한국 공연계를 대표하는 소리꾼 이지람의 판소리 신작 '눈, 눈, 눈'이 잇달아 진행된다. 올해 공연의 대미는 11월 27~29일 호주 서커스 공연단체 서카(Circa)가 장식한다. 고전 발레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한 서커스 '덕 폰드'(Duck Pond)는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CC 초이스' 예매 등 자세한 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